

## 1. 일 하는 방법

"이미 법을 세웠으니 어찌 다시 명을 내린 후에야 검찰하리요. 자주 명령을 내리면 도리어 명령이 가볍게 생각되리니, 경이 검찰하되 좇지 않는 자가 있거든 아뢰고 의논하라." (세종 2/1/11)

"그렇기는 하지만, 즉시에 금할 수는 없으니, 미리 기일을 정하는 것이 옳을 것"(세종 2/1/26)

"지금 일기가 따뜻하게 강의 얼음이 장차 풀리게 되면, 사람이 빠질까 염려되니, 각 나루터에 명하여 얼음을 깨고 사람을 건너게 하라." (세종 2/1/27) - 사전 대처

(감사(監司)의 직분을 게을리한 관리에 대한 징계를) 사헌부에서도 상소하여 이를 청하였는데, 임금이 작은 실수라 하여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 2/#1/11)

"어리석은 백성들이 불쌍하기는 하지마는, 그렇다고 하여 도로 내어 준다면 뒷사람을 경계할 수 없을 것이다." -중략- 임금의 명령을 허위 조작한 죄로 참형에 처하기로 논죄하였으나, 임금이 그 죽이는 것은 용서하였다. (세종 2/4/28) - 원칙 중심과 정상 참작 사이의 긴장

"임금의 하는 일이 만세(萬世)의 법이 되는 것이니, 삼가지 아니할 수 없는 것" (세종 2/11/8)

《육전(六典)》의 한 조문 귀절 내용에 -중략- 군부의 일은 주로 엄숙하게 할 것이니, 계급 사이에는 서로 능멸하고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뒷사람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고, 아랫사람이 복무할 수 있으며, 일이 이루어 지기가 쉬운 것이다. (세종 2/11/10)

관직을 대행하는 자는 그 일을 대신 맡은 문서의 장수, 출납된 전곡(錢穀)의 연월일, 맡은 아전의 성명까지 기록하여 신관(新官)에게 교부한 뒤에 해유(解由, 전임자의 책임 면제)를 내어 줄 것이며, 매년 연말에 마감일 끝날 때에, 이상의 문권은 그 목록 세 벌을 써서 호조와 사헌부와 본사(本司)에 나누어 두었다가, 후일의 참고가 되게 하소서. (세종 2/12/15)

## 2. 소통

### (1) 다사리

임금이 교서를 내려 신하들의 진언을 요구하고(세종 1/6/2), 의정부와 육조에 명하여 그들의 언론을 의논하게 하였더니 -중략- 이상 16개 사항을 모두 그대로 좇기로 하였다. (세종 2/#1/29)

정부와 육조에서 여러 도의 수령과 한산인(閑散人)으로부터 올려 보낸 여러가지 편의 사항을 함께 의논하여 올리게 하였으니 -중략- 이상 19가지 조목을 모두 그대로 따랐다. (세종 2/11/5)

예조에서 (미결건을) 계하기를 -중략- 30(31)가지 조목을 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 2/11/7)

(2) 여론 (세종 2/4/2)

(3) 재확인 (세종 2/12/17)

### 3. 집현전의 대대적 개편 (세종 2/3/16)

임금이 명하여 집현전에 적당한 수의 노비를 두게 하였다. (세종 2/3/17)

"집현전에 서리(書吏) 10명을 두되, 경연 서리 예에 의거하여 실직과 예비역을 각각 5명으로 하고, 7품으로 관직을 떠난 것과 같이 하소서." (세종 2/4/11)

### 4. 신권臣權 vs 왕권王權

#### (1) 보고 체계

상왕이 "일찍이 유사에게 명하여, 나에게 아뢴 것이 있거든 먼저 주상께 아뢰어 나에게 전달하게 했는데, 어찌 갑자기 와서 소를 올리며, 병조는 어찌하여 이를 저지하지 않았느냐."(세종 2/1/20)

이종무와 김양준의 죄줄 것을 아뢰니, 임금이 "내가 장차 상왕께 아뢰겠다." (세종 2/1/21)

"상소할 때 직접 상왕전에 아뢰지 말라. 상왕께서 번다함을 싫어하시기 때문이라"(세종 2/1/25)

"왜인 삼미다라가 사람을 보내어, 연전에 빼앗아 온 배와 나누어 배치한 왜인 삼미삼보라 등을 돌려 달라 청합니다." 임금이 "경(허조)이 몹소 상왕께 아뢰어 교지를 받아 시행하라"(세종 2/5/11)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조회에 아뢴 여러가지 일을 대개 직접 폼하였다 하고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간사한 자가 허위 조작하는 폐단이 있기도 하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일이 친히 폼한 것이라도, 반드시 다시 아뢰어 교지를 물은 뒤에 공문을 발송하게 하소서." 그대로 따랐다. (세종 2/5/11)

영의정부사 유정현과 우대언 정초를 상왕행재소에 보내 술과 과일을 올리려 하니, 상왕이 "대신이나 근신이 번잡하게 오지 말라." 하니, 정현 등이 그곳까지 가지 못하고 돌아오다.(세종 2/10/8)

#### (2) 외유의 재제

할 말이 있으면 내 아들이나 대신이나 병조에 고하여 나에게 전달하게 할 것이어늘(세종 2/4/23)

신하로써 임금을 거역하는 것. 내가 즉위한 뒤부터는 그런 폐단을 개혁하고자(세종 2/4/24)

세 번 간했다가 듣지 않으면 물러가는 것[三諫不聽則去]<sup>1</sup> (세종 2/4/25)

---

<sup>1</sup> 為人臣之禮：不顯諫。三諫而不聽，則逃之。子之事親也：三諫而不聽，則號泣而隨之。(남의 신하

‘상왕께서 비록 사직을 금상 전하게 넘겨주셨지만, 그렇더라도 나라 일을 진념하셔야 할 것은 금상과 매한가지이니 불가불 아뢰어야 한다.’ -중략- “기탄없이 상왕의 거동을 물었으니, 모두 모반하는 대역죄로 논하기를 청하나이다.” (세종 2/4/26)

## 5. 원경왕후의 홍서

성균악정 권홍의 딸을 별궁으로-중략- 임금 옷을 붙잡고 "상감께서는 어찌 예전의 뜻을 잊으셨습니까?"-중략-정비는 마음에 병을 얻었고, 임금은 수일 동안 정사를 듣지 않았다. (태종 2/3/7)

정비가 민무구 등의 일 때문에 속으로 불평을 품고 여러 번 불손한 말을 -중략- 사사로운 분한 (忿恨)을 품으니, 내가 폐출(廢黜)하여 후세를 경계하고자 하나, 조강지처임을 생각하여 차마 갑자기 버리지 못하겠다. (태종 11/9/4)

대비가 이날부터 학질병으로 앓기 시작하였다. (세종 2/5/27)

약사여래에 기도 -중략- 소격전(昭格殿)에 가서 북두칠성에 초제(醮祭) -중략- 성황(城隍)의 신(도시의 수호신)에 기도하고, 저녁에 소경 중 7인을 불러 모아 삼십품 도량을 낙천정 안뜰에 배설하고, 임금이 수라도 진어하지 아니하고 침소에도 들지 아니하며 정성을 다해 기도(세종 2/6/1)

임금과 양녕·효령이 대비를 모시고 개경사에-중략-안팎에서 그 향방을 알지 못했다(세종 2/6/6)

"내가 대비와 주상의 간 곳을 몰랐더니, 오늘에야 알고보니 주상이 대비의 학질을 근심하여 몸소 필부의 행동을 친히 하여, 단마(單馬)로써 환자 두 사람만을 데리고 대비를 모시고 나가 피하여 병 폐기를 피하니, 심히 그 효성을 아름답게 여긴다." (세종 2/6/7)

(피병 중에) 잘못 길을 잃어 다른 집에 이르니 (세종 2/6/10)

상왕이 피병소에 거동해 대비를 보고-중략-군신이 비로소 임금의 계신 바를 알게 (세종 2/6/11)

임금이 근심으로 식사를 폐하고 안색이 초취 -중략- 식사해 늙은 내게 효도하라(세종 2/6/14)

임금이 홀로 종일 대비를 모시고 문 닫고 있으므로, 두 대군도 들어갈 수 없었다. (세종 2/6/16)

임금이 주야로 모셔 잠시라도 걸을 떠나지 않고, 탕약과 음식을 친히 맛보지 않으면 드리지 않고, 병환을 낮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으면, 어떠한 일이든지 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세종 2/6/20)

---

된 이의 예는 (군주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간하는 것이다. 세 번 간해도 듣지 않으면 그를 버리고 떠난다.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일은 세 번 간해서 듣지 않으면 울며 따른다. 『예기禮記』 「곡례 하曲禮下」); 君有過則諫，反覆之而不聽，則去。(군주에게 잘못이 있으면 간하고, 반복하여도 듣지 않으면 떠나갑니다. 『맹자孟子』 「만장 하萬章下」)

새벽마다 천차(遷次)하고 밝기 전에 장전(帳殿)에 돌아와 낮에는 머물러 쉬니 (세종 2/6/21)

"들으니, 대비의 병환이 이미 세 차례나 발하지 않았은즉, 아마 다시 발하지는 않을 것 같다. 나라는 오래 빌 수 없으니, 주상은 창덕궁에 돌아와서 늘 견여(肩輿)로 문안하라." (세종 2/7/2)

대비의 병환이 다시 발하니 -중략- "큰 일이 있으면 빈소를 염려치 않을 수 없으니"(세종 2/7/7)

살아날 수가 없고, 일기가 너무 더우니, 전일에 이른 대로 관곽 등을 속히 준비하라. (세종 2/7/8)

"대비가 위태하다. 때가 역시 대단히 더우니, 속히 치상할 일을 준비하라." (세종 2/7/9)

낮 오시(11-13시)에 대비가 별전에서 흥 -중략 상왕이 거적자리에 나가 미음을 전하니, 임금이 음식을 진어하지 않은 지 이미 수일이라, 상왕이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권했다.(세종 2/7/10) <sup>2</sup>

궁인들이 몰래 기름종이를 거적자리 밑에 넣었더니, 임금이 알고 걷어 내게 (세종 2/7/11)

상왕이 좌우 신하들에게 "주상이 본래 소찬(素饌)을 하지 못하였는데 어찌 할꼬" (세종 2/7/13)

저녁에 큰 비가 와서 물이 넘쳐 여차(廬次)에 들어오되 -중략- 광연루 아래로 자리를 옮겨-중략-해진 병풍과 흠 돛자리를 깔았을 뿐이었다. 날이 밝으매 다시 여차로 돌아갔다. (세종 2/7/13)

상왕이 낙천정에 돌아와 좌우에게 "국가의 일을 알고자 하여 여기에 돌아왔노라." (세종 2/7/14)

"주상은 얻기 어려운 임금 -중략- 조리 보양하여 병이 나시지 않도록 하라." (세종 2/7/15)

대비가 어렸을 때, 나에게 시집와서 38년이 됐는데, 내조의 공이 적지 않았나니 (세종 2/7/25)

임금이 "어찌하여 상중에 형결(刑決)할 것을 말하느냐." (세종 2/8/2)

(양녕의 제사 참여)"나의 명령이 곧 법이 되는 것. 어찌 옛날 제도만 따를 것이라?"(세종 2/8/11)

능 옆에 절을 세우지 못하게, 법석(法席)을 개혁, 덮개 돌을 쪼개서 두 개로 (세종 2/8/17)

참찬(參贊) 변계량(卞季良)이 헌릉(獻陵) 지문(誌文)을 지어 올렸는데 (세종 2/8/24)

예조에서 -중략- 시호를 원경 왕태후(元敬王太后)라 올리고, 능호(陵號)는 헌(獻) (세종 2/8/25)

---

<sup>2</sup> 말라리아 발병 5/27 - 홍서 7/10, 열 곳 넘게 피병.

cf) 세종과 매사냥을 하고 온 후(세종 4/4/22), 보름 만에 갑자기 태종 56세에 홍서(세종 4/5/10).

"주상이 젊었을 때부터 고기가 아니면 밥을 먹지 못하였으니" (세종 2/8/29)

"전석(全石)을 -중략- 두 조각을 내어 쓸 것, 또 네 모퉁이에 쓸 돌도 두 개나 세 개의 돌을 연합(連合)하여 쓰는 것이 가하다. 나의 백세(百歲) 뒤에도 마땅히 이 제도를 쓰라." (세종 2/9/4)

나라의 풍속이 대개 상사는 전부터 불가(佛家)의 의식을 썼는데, 이에 이르러서 모두 고치고 일절 옛날 예법을 따랐다. (세종 2/9/16)

"내가 양녕대군으로 내달 초하루에 헌릉에 제사 지낼 때에 행향사(行香使)를 시키고자 하는데, 어떨까." 하니, 모두 "불가하다." -중략- "효령대군은 어떨까?" 하니, 모두 "가하다." (세종 2/9/29)

세종 2/5/29; 2/5/30; 2/6/8; 2/6/11; 2/6/12; 2/6/13; 2/6/14; 2/6/15; 2/6/19; 2/6/21; 2/6/23; 2/6/26; 2/6/27; 2/6/28; 2/6/29; 2/7/1; 2/7/3; 2/7/9; 2/7/11; 2/7/13; 2/8/25; 2/10/21; 2/10/27; 2/11/26; 2/12/1

## 6. 관상수시觀象授時<sup>3</sup>

은병같은 것이 동북쪽에서 일어나 서남쪽으로 들어가면서 우레같은 소리가 났다. 일관이 이것을 몰랐으므로, 사력인 위사옥을 옥에 가두어 그 죄를 다스렸다. (세종 2/1/4)

상왕이 시간을 알리는 물시계가 틀리므로, 서운감 정 유당을 의금부에 가두었다. (세종 2/7/19)

## 7. 법

### (1) 손실담험법 (vs 공법貢法)

여러 번 경차관(敬差官)이 담험을 불공평하게 한 실수 (세종 2/7/30)

"관·민간에 폐단이 없도록 힘쓰라.공평하지 않은 자가 있거든 법에 의해 엄중 논죄"(세종 2/8/14)

손실(損實)을 공정하게 조사하지 못해서 공사(公私) 간에 피해가 되고 (세종 2/8/20)

### (2) 수령고소금지법 발의

“근래에 주현의 아전이나 백성들이 그의 수령의 범한 것을 고하는 자가 흔히 있어”(세종 2/9/4)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함부로 하는 일이 자주 있으니” (세종 2/9/13)

---

<sup>3</sup> 欽若昊天，歷象日月星辰，敬授人時。(우리러 공경함을 넓은 하늘과 같이 하여, 해·달·별의 출현상태를 보아 삼가 사람에게 때를 알려준다.《상서尚書》《우서虞書》《요전堯典》)(→ 경북 궁 안 경회루 근처에 <흠경각欽敬閣> 설치, 그 안에 자동 대형시계를 두었다, 세종 19/4/15)

## 8. 인물열전

### (1) 임영대군

(문종, 이향李琳, 장남) 갑오년(1414년, 태종 14년) 10월 3일에 한양의 사저에서 탄생 (문종 총서)

(세조, 이유李瑑, 차남) 정유년(1417, 태종 17/9/29)에 본궁(本宮)에서 탄생 (세조 총서)

왕자 이용(李瑢, 삼남 안평대군)이 출생 (세종 0/9/19)

왕자 이구(李璆, 사남 임영대군)가 출생 (세종 2/1/6)

왕자 이여(李璵, 오남 광평대군)가 탄생 (세종 7/5/2)

왕자 이유(李瑜, 육남 금성대군)가 출생 (세종 8/3/28)

왕자 이임(李琳, 칠남 평원대군)이 탄생(세종 9/11/18)

왕자가 탄생하니, 바로 영웅대군(永膺大君) 이엄(李琰)이다. (세종 16/4/15)

임영대군의 아내 남씨는 나이가 12세가 넘었는데 아직 오줌을 싸고, 눈이 바르지 못해 혀가 심히 짧고, 행동이 놀라고 미친 듯-중략-인증과 머리와 이마 위에도 뜬 것이 있기에, 의원 노중례를 시켜 비밀히 남씨 집에 출입하는 의원 김사지에게 묻게 했더니 '어릴 때에 미친 병이 생겨 화염종의 증을유가 치료했다' -중략-동궁이 아내(김씨)를 버렸는데(세종 11/7/20) (세종 15/6/14)

나의 여러 아들 중에서 구만이 유독 음탕하고 방자하여 내가 매우 염려하는데 (세종 21/5/3)

화포-중략-감독하게 했더니, 화살이 8,9백 보를 넘어 가고 혹은 천여 보에 (세종 27/3/18)

군기감에서 간직하고 있는 총통 -중략-임영대군에게 단련하는 것을 감독해 고쳐 (세종 30/9/13)

임금(문종)이 임영대군 이구(李璆)에게 명하여 화차(火車)를 제조하게 (문종 1/2/13)

세종이 -중략- 음악을 배우도록 하였다. -중략-구는 본래 음률에 밝았기 때문에 (세조 총서)

임영대군과 신숙주-중략- 등에게 명해 모화관에 가서 새로 만든 총통전을 쓰게 (세조 13/7/30)

세조를 섬기며 -중략- 권애(眷愛)가 몹시 융성(隆盛)하였다. (예종 1/1/21) -졸기

### (2) 양녕

양녕이 집 중에게 병든 매를 주어 상왕께 보냈는데-중략-"양녕이 두 번이나 법을 범하고, 병든 매를 내게 보내니, 그 염치 없음이 이와 같이 심하다. 임금께 고하여 불러 꾸짖으라."(세종 2/1/3)

(세종이) "양녕의 일은 고식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 못되고, 장구한 계책이 필요한 것이니[非以姑息之計對也, 乃爲長久之計], 다시는 청하지 마라." (세종 2/1/20)

### (3) 권희달

(강무에서) 이상항의 개가 먼저 노루 새끼를 잡았는데, 권희달의 개가 뒤쫓아 잡다. 희달이 노복을 시켜서 이를 겁탈하니, 상항이 거센 소리로 희달을 욕하고 도로 그것을 빼앗다. 희달이 말하기를 "대사헌이 되면 이같이 무례한 사람을 징계하겠다." 보는 사람이 모두 웃었다. (세종 2/2/13)

이때의 사람들이 강포(強暴)한 사람을 지목해 말하기를 "권 총제(權摠制)" 라고 하였다. 태종의 잡저 때 옛 정을 생각하여, 드디어 높은 반열에 이르렀다. (세종 16/9/7)

### (4) 이양

이양이 하직을 아뢰니, 상왕이 명하기를 "내가 말에 오를 때 다시 보자". 말에 오를 때 양이 보니, 상왕이 양을 임금에게 보이며 "이 사람이 이양이오." 하니, 양이 감격하여 울었다. (세종 2/3/6)

### (5) 하윤

태조가 높은 코[隆準]에 용의 얼굴[龍顏]이었는데, 태종의 용모가 이를 닮았다. 하윤이 여흥부원군 민제와 동지(同志)의 친구이었는데, 윤이 본래 사람의 상 보기를 좋아하여 -중략-민제가"하윤이 군을 보고자 한다." 하였다. 태종이 만나보니, 윤이 드디어 마음을 기울여 섬기었다. (태종 총서)

두 왕이 주연을 베풀었다. -중략- "정승 하윤은 사람됨이 남의 잘하는 것은 되도록 돕고, 남의 잘 못하는 것은 되지 아니하도록 말려, 충직하기가 견줄 사람이 없다. -중략- 민가들이 이간하려 모략했지만, 나와 윤이 서로 알아주는 사이를 누가 이간할 수 있겠는가" 이내 울었다. (세종 2/5/8)

### (6) 이순몽 (제2차 왕자의 난 좌명공신佐命功臣 이응李膺의 아들)

임금이 상왕을 따라 모화루에서 사신을 전별할 때, 성달생·이순몽·홍섭 등이 별운검총제로서 임금을 따라 모화루 위에 올라 칼을 차고 시립(侍立)한 것을 임금이 보고 말하기를 "부왕이 여기 계옵신데 어찌 칼을 차고 옆에 있을 수 있느냐." (세종0/9/13)

이순몽이 점심 수라 때에 입시하였다다가 이명덕과 말하는 가운데 "나는 목이라도 매어 죽고 싶다." 하여, 임금이 그 예절을 모르는 것을 괘씸하게 여겨 -중략- 근신하게 했더니, 헌부에서 탄핵하려 하므로, 상왕이 "빨리 부임하여 가서 헌부의 탄핵을 피하라." (세종 2/5/8)

### (7) 윤희

응봉사 녹사 윤희를 순군옥(巡軍獄)에 가두었다. 처음에 회가 사신관(使臣館)에 뽑혀 들어가서 무역해 바꾸는 말의 장적(帳籍)을 쓰는데, 하루는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았다. (태종 1/11/3)

윤희는 술을 마시면 곧 취한다. 취중의 일은 논할 것이 없으니, 회를 불러 책하리라.(세종 2/9/13)

"너는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술마시기를 도에 넘치게 하는 것이 너의 결점이다. 이제부터 양전(兩殿)에서 하사하는 술 이외에는 과음하지 말라." (세종 2/9/14)

평안도 도관찰사가 급히 "명나라에서 내사(內史) 해수를 보내 칙서를 받들고 이달 초4일 압록강에 이른다." 보고했다. 밤이 깊어 성문도 이미 닫혔을 때라, 임금이 곧 홍인문을 열라 명하고, 환관 이촌을 낙천정에 보내 상왕께 계하라 했다. 촌이 간즉, 궁문도 이미 닫혔고, 2경(밤 9-11시)이 다 됐는데, 병조판서 조말생과 참의 윤희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미처 계달하지 못했다.(세종 3/9/5)

윤희는 어머니의 거상이 끝나지 않은 채로 임관돼 직무에 나가는데, 대궐에 들어가다 술을 마시고 몹시 취하여 승정원에 이르러서 실수한 일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비웃었고 (세종 15/#8/1)

태종이 "경은 학문이 고금을 통달했으므로 세상에 드문 재주"-중략-순정한 유학자라 일컬었다.-중략-술을 즐기니 두 임금께서 여러 번 꾸짖어 금하게 했으나, 그치지 못했다.(세종 18/3/12)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글별[文星]과 술별[酒星]이 한곳에 모여서 한 어진이를 낳았다." (이공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필원잡기筆苑雜記」)

## (8) 궁궐 안 사람들

- ① 환관 유침, 김천, 김경덕, 양자산, 매룡 (세종 2/9/28 ; 세종 2/9/29)
- ② 시녀 장미, 소비 (세종 2/10/11)
- ③ 세수간별감 부귀 (세종 2/10/11)
- ④ 전의감정 정종하 (세종 2/10/28)
- ⑤ 매잡는 시파치의 병역 비리 (세종 2/10/29)

## (9) 소현왕후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 크다 하겠으나, 집안 다스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공비(恭妃)의 성질이 투기하지 아니하며, 부왕도 평소에 이를 칭찬하셨다. (세종 2/10/11)

## 9. 도가적 풍습 - 별제사

이 날 저녁은 상원(上元, 정월대보름)이므로 소격전에서 삼계대초(三界大醮)를 행하게 되었는데, 마침 종묘대향이라 마땅히 희생을 검사하고 도살[宰殺]을 해야 되므로, 임금이 서로 방해가 있음을 염려하여 근신 정초에게 이것을 물으니, 정초가 대답하기를 "제천(祭天)함에 생(牲)을 씌운 고금의 통레이요, 소격전에서 주육을 금함은 도가(道家)에서 전래된 바입니다." (세종 2/1/15)

## 10. 유교적 가치

### (1) 교화

효자·절부·의부(義夫)·순손 -중략- 기록을 좌·우 의정과 의논한 결과 41인. (세종 2/1/21)

현리(縣吏) 석진의 아버지가 바람병 -중략- 무명지를 잘라 피에 타서 드리니, 병이 조금 낫고, 두 번째 먹이니 병이 다 나왔다. -중략- 그 마을 어귀의 문에 정표하고, 이역을 면제(세종 2/10/18)



## (2) 외교

厚往而薄來，所以懷諸侯也。(가는 것을 후하게, 오는 것을 박하게 하는 것은 제후들을 포용하는 방법이다. 『중용中庸』 20장)

## (3) 음악

"연향을 베풀 때에 항상 향악(鄉樂)을 쓰는데, 그 가사가 매우 비열하니, 변계량·조용·정이오 등으로 하여금 장수하기를 비는 뜻과 경계될 만한 말로 각기 가사 세 편씩을 짓게"(세종 2/#1/19)

변계량이 《자전지곡(紫殿之曲)》 삼장(三章)을 지어 올리니 (세종 2/3/27)

## (4) 禮 vs 忠/孝

생일에 -중략- 편전에서 중척·대신과 잔치하는데, 조말생이 찬[飮]을 올릴 적에는, 임금의 반드시 자리에서 내려와 땅에서 받았다. (세종 1/4/10)

"돈이 있어도 자손의 어쭙은 사기 어려운 것입니다."<sup>4</sup> (세종 2/4/14)

주상의 효도 -중략- 함께 의논해 변계량을 시켜 송덕(頌德)하는 가사를 짓도록(세종 2/5/13)

"내가 본디 현명한 줄은 알았지만, 노성함이 여기까지 이른 줄은 알지 못하였구나." (세종 2/5/16)

내가 어찌 주상을 날마다 보고 싶지 않으리오마는, 예절에 거리껴 감히 못한다. (세종 2/5/20)

## 11. 무기

(1) **방화통**(放火筒, 폭탄) : 상왕이 살곶이 목장[箭串牧場] 밖에 있는 땅을 택하여 방화통 연습하는 곳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였다. (세종 2/#1/3)

(2) **화포**(火砲, 총포/대포) : 두 임금이 살곶이에 거둥하여 화포를 시험하였다. (세종 2/#1/16)

### (3) 군함 :

상왕이 군기감 제조 윤자당과 병조 판서 조말생에게 명령하여 양화도에서 전함 시험(세종 2/5/12)

배가 항상 앞서게 되어 경첩(輕捷)하고 빠르기가 왜선보다 나았다. (세종 2/11/17) - 군함 개량

---

<sup>4</sup> 無藥可醫卿相壽 有錢難買子孫賢。(약이 없어도 (돈 많은) 재상의 목숨을 구할 수 있지만, 돈이 (재상처럼 많이) 있어도 자손의 어쭙은 사기 어렵다, 『명심보감明心寶鑑』 「성심省心」)

## 12. 유전무죄 무전유죄

청주를 마신 자는 죄에 걸린 적이 없고, 탁주를 마시거나 사고 판 자는 죄에 걸려(세종 2/#1/23)

## 13. 경제

### (1) 저화

처음으로 사섬서(司贍署) 영(令) 1인, 승(丞) 2인, 직장(直長) 2인, 주부(注簿) 2인을 두어 저화를 맡게 하였으니, 하윤의 의논에 좇아 초법(鈔法, 화폐제도)을 행하고자 함이었다. (태종 1/4/6)

명하여 나라에서 쓰는 모든 물건은 다 저화로 사고 팔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베와 쌀을 쓸 것을 아뢰고 시행하라 하였다. (세종 2/#1/9)

"장사치들이 저화를 사용하는 것을 힘쓰지 아니한다 하여, 내가 염려하는 것이니, 그것이 널리 잘 행해지게 할 방법을 의정부와 육조에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세종 2/2/25)

저화 통용 방책 (세종 2/4/7)

### (2) 가뭄 대책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 탄신 날의 진하하는 절차를 정지시키게 하니 (세종 2/4/10)

풀 뿌리를 뽑아오게 하여 친히 보니, 이는 가뭄의 깊고 얄음을 알고자 함이다 (세종 2/4/10)

### (3) 물가

시장 물가가 공평하지 아니하니, 경시서를 시켜 석 달에 한 번씩 시장 물가를 개정케 하고, 그래도 법을 문란하게 하거나 관을 속이는 자는 헌사(憲司)에서 규찰하여 처리하기로(세종 2/8/5)

#### \* 열쇠말 '誠'

“내가 대비와 주상의 간 곳을 몰랐는데, 오늘에야 알고보니 주상이 대비의 학질(瘡疾)을 근심하여 몸소 필부의 행동을 친히 하여, 단마(單馬)로써 환자 두 사람만을 데리고 대비를 모시고 나가 피하여 병 폐기를 피하니, 심히 그 효성(孝誠)을 아름답게 여긴다.” (세종 2/6/7)

誠者，天之道也；誠之者，人之道也。… 人一能之己百之，人十能之己千之。果能此道矣，雖愚必明，雖柔必強。(『중용中庸』 20장)

其次致曲。曲能有誠，誠則形，形則著，著則明，明則動，動則變，變則化。唯天下至誠為能化。(『중용中庸』 23장)

정성은 감동을 부르고, 그렇게 되면 질적인 변화가 생긴다.

COPYRIGHT 오재원연구소공감. All rights reserved.